

# 요나서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않겠느냐?’**

강의 : 최요한 목사

## 1. 성경을 보는 눈(세계관)

- 1)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
- 2)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 2. 요나서 개요

- 1) 요나는 누구인가?
  - 요나는 0 0 0 이다.
  - 구약에서의 요나 / 신약에서의 요나
- 2) 요나서의 배경은?
- 3) 요나서는 왜 쓰여졌을까?
  - 하나님의 주권 : 심판과 회복
  - 하나님의 구원 : 선교적 사명

## 3. 요나서 1장 1절-3절

-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옹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  
 4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7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 자기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14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 여호와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저 큰 니느웨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 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3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옹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배삯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4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이 일게 하시므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5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 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줄는지 누가 알겠소.'  
 7 그때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하고 서로 말하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다.  
 8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뭇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오?'  
 9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10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고 있음을 그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선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하였다.  
 11 폭풍이 점점 더 무섭게 휘몰아치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소?' 하고 물었다.  
 12 그때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13 그래도 그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사나운 파도가 밀어닥치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14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 1. 성경: 요나서 1장 4절- 16절

- 1) 폭풍속에서도 평안한 요나
  - 말씀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말씀
- 2) 다시스
- 3) 요나의 자기소개
- 4) 일하시는 하나님

### 2. 소단락 나누기

### 3. 1장에 나타난 하나님

- 하나님의 주권
- 하나님의 구원
- 기다리시는 하나님
- 폭풍과 제비뽑기로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
- 물고기로 요나의 뜻을 막으시는 하나님
-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돌렸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2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3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4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5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이 빠졌을 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6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7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 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8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버린 자들입니다.

9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0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 내었다.

## 1. 요나서 2장

- 1) 본문의 형식과 장르
- 2) 강조점
- 3) 대조
- 4) 내가 받는 고난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5) 스올의 뱃속이란 무슨 뜻인가요?(2절)
  - 1:17
  - 1절

## 2. 소단락 나누기

## 3. 2장에 나타난 하나님

1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 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2 `너는 저 큰 니느웨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 한 대로 니느웨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3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 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리라 하였더니	4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 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 지라	5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 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 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굶은 삼베 옷을 입었다.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6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삼베 옷을 입고 잣더미에 앉았다.
7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 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 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 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7 그리고서 왕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런 조서를 내렸 다. `이것은 왕과 대신들의 명령이다. 사람이나 짐승 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되며 물도 마셔 서는 안 된다.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 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8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굶은 삼베를 걸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 잘 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 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9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 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는가!'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 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 리지 아니하시니라	10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 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 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1. 요나서 3장

1)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

2)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3) 요나의 예언

-

- 내가 요나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가?

## 2. 소단락 나누기

## 3. 3장에 나타난 하나님



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1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 이 언짢아 분개하며
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 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 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 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 가 알았음이니이다	2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 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 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 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 니다.
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 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3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 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 냐?' 하고 말씀하셨다.
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5 그래서 요나는 성에서 나가 성 동편에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 였다.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 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 이었더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하였더니	6 초막이 시들자 여호와 하나님이 박 덩굴을 자라게 하 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 덩굴 때문에 대 단히 기분이 좋았다.
7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녕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7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 덩굴을 씹게 하시므로 그것이 곧 시들어 버렸 다.
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 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8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 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쓰러질 지경이 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어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 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하였다.
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 니이다 하니라	9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박 덩굴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예, 있습 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 니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10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박 덩굴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 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라	11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성을 내가 불 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 1. 요나서 4장

- 1) 요나의 두번째 기도 : 요2장 참고
  -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불만 :
  - 죽기를 청함
  - 하나님의 첫번째 질문 : (4절)
  - 하나님의 두번째 질문 : (9절)
- 2) 요나가 도망간 이유 :
- 3) 박녕쿨의 은혜

### 2. 소단락 나누기

### 3. 4장에 나타난 하나님

## 과제

### 1. 기도문 작성 (나의 기도)

### 2. 온라인 바이블 소감문